



◇보존처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죽림사 세존과보살 (보물 1279호).

보존처리 후



◇보존처리 전 크거나 손상상태를 치밀하게 조사한다.



◇비탈 재료가 밀려 올라가 심하게 어긋났던 화면이 제 모습을 찾았다.



좁은 밀가루에서 단백질만 제거한 소맥전분분을 10년 정도 삭였다가 사용한다. 불화의 보존처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의 전통적인 표장 형식이 잊혀져 간다는 점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표장 형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전통의 표장 형식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새로운 비단에 새로운 비례로 일본풍의 한국 표구가 형성되어 버린 것이다. 그나마 불화

1998년 보물 제1286호로 지정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14세기)는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우선 1991년 미국 소머리 경매장에서 고려불화로는 최고가인 14억2천만 원에 경매돼 국내에 들어온 것이 그 때문이다. 고려불화 자체가 국내에선 희귀해 10여 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수월관음도는 당시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점이 유일했다. 6백년이 넘도록 화려한 색채를 자랑했던 수월관음도는 그러나 2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조선시대 때 덧칠을 하는 바람에 원형이 많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화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본래의 '화려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낡고 손상된 불화에 본래의 생명을 불어넣은 '과학적 보존처리' 덕분이다. 사실 불화를 비롯한 서화의 보존처리 역사는 긴 편이다. 일반적으로 회화는 그림이 손상된 후에도 비로소 보존처리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예로부터 선조들은 그 이전에 이미 그림을 어떻게 보관하고 취급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장언원이 <역대명화기>에서 표장재료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문인이나 직업화가들은 그림을 그림 때부터 보존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보존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었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보다 나은 보존처리방법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다. 수월관음도 보존처리를 맡았던 박지선 교수(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장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는 "불화는 재료에 따라 제작방법과 손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존과학이 기존의 방법과 다른 것은, 보존처리에 앞서 X-ray와 현미경, 적외선 촬영 등 과학적 장비를 통한 재료 분석을 통해 당시의 제작방법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보존처리를 받으러 오는 불화를 대부분은 "더 이상 버릴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 이룰 수 없이 찾아오는 중환자들"이다. 얼마 전 박 교수가 보존처리를 맡았던 죽림사 세존과보살(제1279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에 수리할 때 화면 연결을 정확히 하지 않아 그림이 어긋난 부분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심하게 꺾인 부분과 결실부분이 많았다. 화면 우측 중 하단은 비단과 삼베가 많이 밀려 올라가 화면이 심하게 어긋나 있었다. 현미경 촬영으로 바탕재질 및 안료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림 전체가 6쪽의 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간의 2쪽은 비단이고 그 좌 우는 각각 삼베를 2

쪽씩 댔다. 불화 보존처리에서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 못지 않게 새로 교체하는 재료와 원 재료의 물리적 힘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두께, 강도, 수축 팽창률의 차이에 따른 힘이 균형을 무너져 오히려 그림에 손상을 입힌다. 안료 역시 열화처리를 통해 약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조사와 기록, 해체, 건식 클리닝, 아교 보강, 배접지 제거, 결실 부분 짜깁기, 배접, 표장 등을 거치는 불화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잘못된 보존처리는 오히려 그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컨대 수월관음도를 보존처리할 당시, 원 작품의 대나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후대에 누군가가 시커멓게 덧칠한 것을 X선 촬영을 통해 확인했으나 두 그루 중 한 그루는 끝내 복원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아쉽지 않으나 손상을 최소화해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배접에 사용하는 풀은 보존처리에서 가장 신경을 쓰야 하는 부분이다. 후대에 보

의 경우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많긴 하지만, 최근 불화 도난 사건이 잦아지면서 소장처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 그림의 밑부분을 잘라버린다는지, 태우기가 있었다 하여 그 위에 비단을 덧대어 버리는 경우가 잦았다. 국내 불화의 과학적 보존처리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과학실이 생긴 것은 1975년이지만, 서화 보존처리실은 1990년대 초에야 생겼다. 그나마 불화의 보존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제는 중앙승가대나 동국대에 문화재보존학과를 신설해 교계 스스로 불화를 비롯한 성보 보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권형진 기자
사진제공=형재문화재보존연구소

“보호 최우선... 모사품 전시해야”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박지선교수

불의 대상이기도 한 불화 대신 모사품을 건다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본 등에서는 불화 보존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있는 일록 하나, 결손 부분 하나까지도 그대로 옮겨 그리는 방식을 현상 모사라고 하는데, 현상 모사한 작품은 원래 불화를 대신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과불의 경우 실제로는

리를 배웠고, 1994년부터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보물 1286호인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고려불화 지정사물(보물 1048호), 죽림사 세존과보살(보물 1279호),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장광대다라니경(국보 126호), 화엄사 5층 석탑 층돌 다라니경(보물 133호), 경주 나원리석탑 내 금동사리함에서 출토된 종이류 등을 국보급 문화재들이 그의 손을 거쳐 원형을 되찾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사와 기록, 해체, 건식 클리닝, 아교 보강, 배접지 제거, 결실 부분 짜깁기, 배접, 표장 등을 거치는 불화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잘못된 보존처리는 오히려 그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컨대 수월관음도를 보존처리할 당시, 원 작품의 대나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후대에 누군가가 시커멓게 덧칠한 것을 X선 촬영을 통해 확인했으나 두 그루 중 한 그루는 끝내 복원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아쉽지 않으나 손상을 최소화해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배접에 사용하는 풀은 보존처리에서 가장 신경을 쓰야 하는 부분이다. 후대에 보

존처리를 할 때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다. 풀의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그림이 딱딱하게 되어 쉽게 꺾이게 되고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또한 훼손이다. 이때 무리하게 배접지를 떼어내면 그림까지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배접에 쓰이는

풀=권형진 기자
사진제공=형재문화재보존연구소

오장 편안하게... 골수·골근 '튼튼'

만드는 법(1~2인분)
항정 20g, 구기자 10g, 현미쌀 100g, 대추 약간.
① 항정은 잘게 부수어 불에 불리고 현미쌀도 충분히 불린다.
② 항정, 구기자, 현미쌀, 대추를 넣고 죽을 끓인다.
③ 대추는 구기자의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준다.
효능 ① 기를 보해주고 오장을 편안히 하여 골수와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② 예로부터 노화를 예방하는 신비의 약재였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황정죽
침입하여, 양민 160여 명이 끌려가는 패배를 겪었다. 이 일로 함경북도 병마사 이일은 이순신을 추모하고 극형에 처해 달라는 장계를 조정에게 올렸다. 하지만 선조는 훗날 조선의 운명을 건질 장군임을 알아보기라 한 듯 극형 대신 곤장형에 처한 후 사탕관직하여 백의종군토록 조치했다. 울분과 괴로움에 찬 이순신 장군은

이듬해 1월 14일 여진족 2차 정벌이 시작되었고 이때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이순신은 복직되어 정음현감으로 부임했고,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했다. 이순신은 가는 곳마다 병사들에게 항정을 펼칠 수 있었고 엄동설한에도 용맹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에서 구해 다 먹는 항정에 있었던 것이다. 장군은 그날부터 병사들을 위해 항정을 넣어 밥을, 밤참으로는 항정죽을 끓여 내도록 했다. 그 결과, 병사들은 백병전에서도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했다.

■ 약성식 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모세의 저자

시방세계

www.buddhanews.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news.com